

# 비아트@루프

대안공간 루프, <카즈나리 핫토리 포스터> 개최  
2020년 9월 9일~27일(일) AM10:00~PM7:00  
한국 젊은 디자이너들의 로망,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카즈나리 핫토리의 한국 첫 초대 개인전

대안공간 루프는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카즈나리 핫토리 포스터>를 개최한다.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카즈나리 핫토리는 독자적이고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중 한명이다.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카즈나리 핫토리의 작품 50여점을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첫 초대 개인전이다.

카즈나리 핫토리의 작업은 '비스듬'하다. <한밤중Mayonaka>의 로고 디자인, 다각형의 그래픽을 구성하는 선, 큐피 하프의 광고 카피의 위치, 글꼴, 벡터 그리고 레이아웃, 디테일부터 전체까지 모든 곳에 '비스듬'이 침투해 있다. 핫토리는 '정체'가 태연하게 두르고 있는 '올바름'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진다. 선형적으로 정해진 올바른 것은 없으며 사체는 정체를 기울여 만들어지는 사후적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여 '비스듬'이 그 자체로서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핫토리는 디자인을 통해서 '개념'에 도달하려고 한다. '디자인'이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기술로 작용한다. 그의 디자인은 정체와 사체, 색과 형태, 문자와 사진 그리고 상품과 비상품적 요소가 모두 즐겁게 나열되어 있다. 그 즐거움은 핫토리만의 유머러스한 조형감각에서 유래되었다. 핫토리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는 자연체 활동가다. 그의 디자인은 자유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 앞에 던져진다.

핫토리 카즈나리(b, 1964-)는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이다. 도쿄 예술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 1988년 졸업과 동시에 광고제작사(Advertising production company) '라이트 퍼블리시티Light Puplicity'입사 이후 2001년까지 13여년간 아트디렉터로 근무했다. 이후 Kazunari Hattori Design Office로 독립, 그만의 독특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KEWPIE의 지면광고 (1999년·2000년·2001년·2005년ADC상 수상)과 2002~2004년에 걸친 <流行通信RyukoTsushin> 아트 디렉션 (제6회 카메라쿠라 유사쿠상 수상)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시도들은 일본 그래픽디자인계에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물결을 주도했으며 국제적으로도 두터운 팬 층을 쌓았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관람은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네이버 사전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404506/items/3570007>

코로나19로 인해 한시간에 10명으로 입장을 제한 합니다.

카즈나리 핫토리 포스터 Kazunari Hattori Posters

참여작가: 카즈나리 핫토리

전시기간: 2020년 9월 9일(수) - 9월 27일(일) \*별도의 오프닝 행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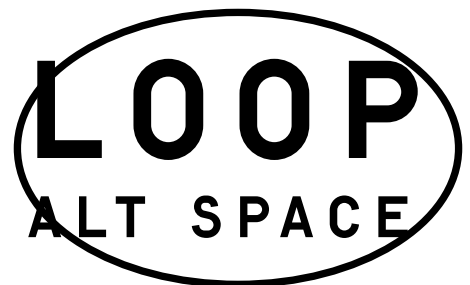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협력: 그레이오발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POSTERS

# KAZUNARI HATTORI

카즈나리 핫토리, 자연체自然體 활동가  
Kazunari Hattori, a natural activist

카즈나리 핫토리의 작업을 보고 있으면 ‘비스듬하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미츠비시 1호관 미술관이나 문학잡지 <한밤중Mayonaka>의 로고 디자인, 다각형의 그래픽을 구성하는 선, 큐피 하프의 광고 카피의 위치, 글꼴, 벡터 그리고 레이아웃, 디테일부터 전체까지 모든 곳에 ‘비스듬’이 침투해 있다.

왜 ‘비스듬’한가? 분명 핫토리는 ‘정체(正體, normal font style)’가 태연하게 두르고 있는 ‘올바름’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을 것이다. 선형적으로 정해진 올바른은 없으며 사체(斜體, Italic font)는 정체를 기울여 만들어지는 사후적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여 ‘비스듬’이 그 자체로서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 핫토리에게 ‘디자인’이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의 디자인은 정체와 사체, 색과 형태, 문자와 사진 그리고 상품과 비상품적 요소가 모두 즐겁게 나열되어 있다. 그 즐거움은 물론 핫토리만의 유머러스한 조형감각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또는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하고 있기 때문에 유쾌한 느낌을 받는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비스듬’도 있다. ‘중력’이다.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비스듬한 상태에서 중력은 항상 활동적이다. 비스듬을 그토록 좋아하는 핫토리가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아트 디렉션을 맡은 패션잡지 <유행통신Ryuko Tsushin>은 ‘중력이 뭐였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미지로 가득했다. 가방이 어색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천장에 매달려 상하를 거꾸로 뒤집어 냈거나, 책 끝이 풍선에 매달려 살짝 떠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비스듬과 중력의 합체 기술!)

핫토리는 중력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 중력의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우리 안에 배어버린 익숙한 인식이나 사고, 감각을 리셋시킨다. 무중력이 아닌 비 중력, 중력의 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공중에 떠있는 이미지 앞에서 분명 사람은 유쾌한 불안을 느낄 것이다. 즉 자신의 감성을 재인식시킨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시청각 미디어에 의해 기존의 상징이나 감각이 컨트롤되고 있다. 게다가 마케팅과 프로파일링으로 의식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시장화되었다. 상상력과 감성을 통해 타인이나 세계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할 ‘상징’은 문자자본에 의해 착취되어 기능장애 상태가 되어버렸다—이러한 세상을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상징의 빈곤’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대에 민감한 디자이너라면 ‘상징의 빈곤’이 일어나버린 업계를(즉 자신들을) 비판하고, 기업이나 문화 자본의 가속하는 욕망과 사람들의 개인적 욕망의 관계를 장기적인 시점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익명의 디자인들로 인해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멀리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상황을 핫토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떠올려보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그 이유는 뚜렷한 관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핫토리는 어디까지나 디자인을 통해서 ‘개념’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 말이 영통한 의견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해하기 쉬운 ‘개념’의 특징은 사실 명확함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개념은 하나의 다양체’라고 했다. 또한 ‘개념이란 다가올 사건의 윤곽, 배치, 별자리이다.’고도 말했다. 여기서의 ‘개념’이야말로 이상적인 디자인의 존재 방법이다. 형체를 배치하여 형태를 만들고, 별을 배치하여 형태 없는 형태 즉, 성좌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켰다. 옛날의 우리는 무한하게 펼쳐진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 사이에 관계성을 발견하여 그것에 시적인 이름을 붙이는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같은 하늘에서 같은 모양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아름다운 감성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필수이다.

월간지 <월간 백과Gekkan Hyakka>의 표지는 ‘고양이’라는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한정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고양이들. 야옹, 후, 쿵 하는 이미지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려온다. 마음에 든 고양이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고양이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발행 출판사인 헤이본사가 백과사전이라는 개념의 집약체에 계속해서 관련해온 기업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나는 다양성과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세계와의 연결을 약간 회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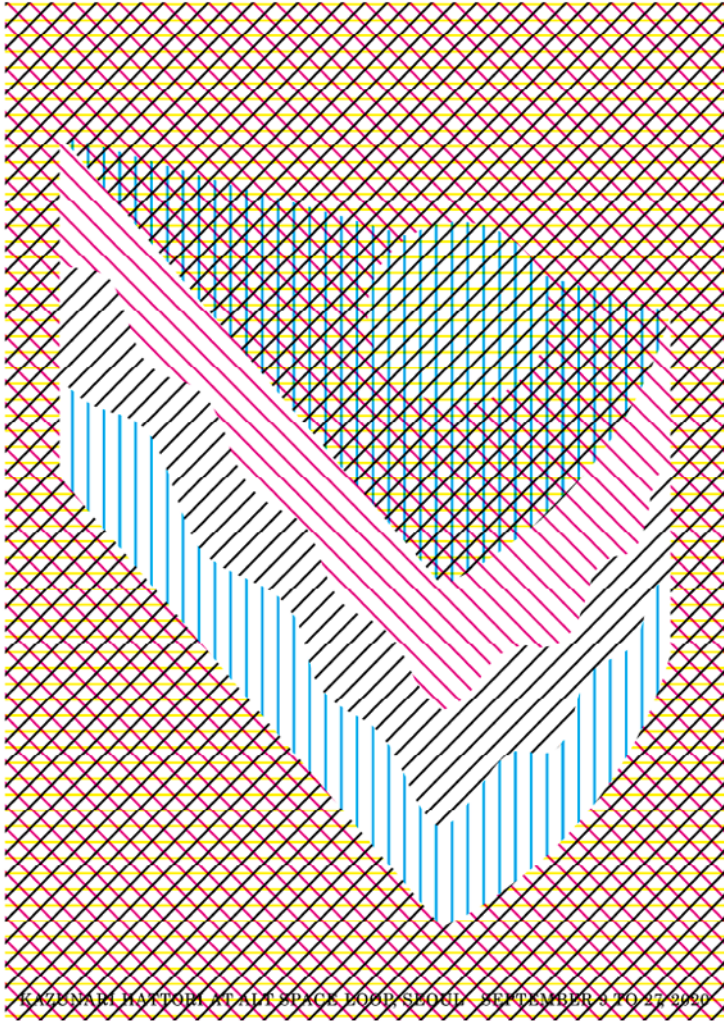
이처럼 핫토리는 디자인으로 실체화된 ‘매스’라는 집합을 디자인으로 해방하려 했다. 디자인을 사랑하기에 디자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며 ‘매스’를 ‘개인의 집약체’로 환원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남에게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 ‘작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here and there>이라는 작은 규모의 잡지, 가수의 책, 작은 미술관의 광고, 큐피 하프 광고도 그랬다. ‘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아키야마 쇼우의 카피를 핫토리가 자신의 필체를 사용한 것은 귀여움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 적어 놓는 들, 분명 그는 즐려 보이는 눈을 조금 크게 뜨고 “그래요? 아마 호사카상 말이 맞을 거예요.” 하며 웃을 것이다. 카즈나리 핫토리는 어디까지나 자연체 활동가이다. 그의 디자인은 자유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 앞에 던져진다.

글: 호사카 켄지로,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큐레이터  
<ggg books 95: Kazunari Hattori> 수록글에서 발췌

전시작품 소개 및 주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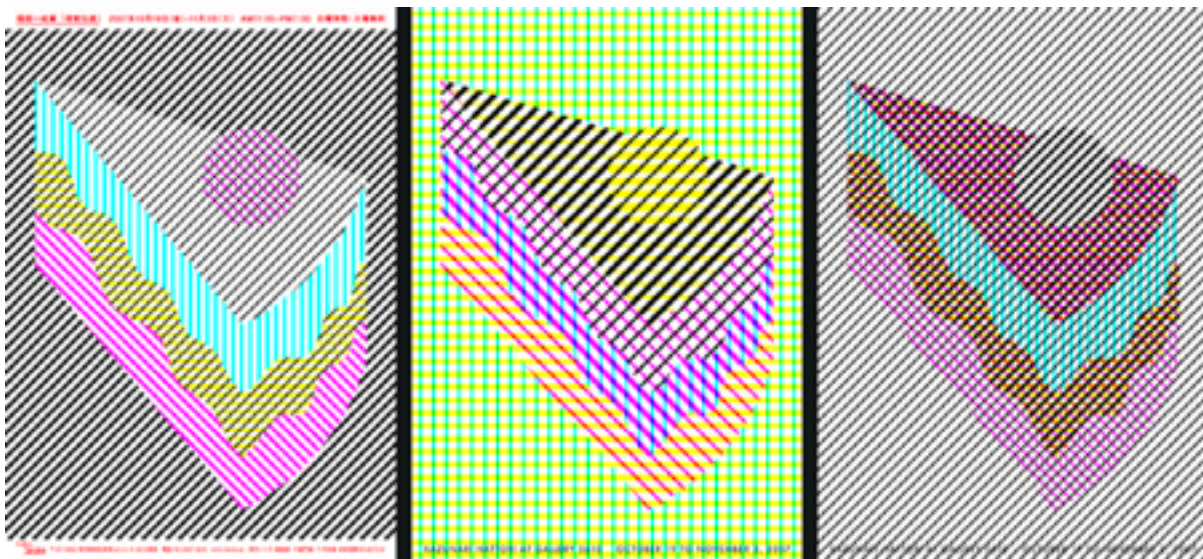
Cake Seoul Edition



Silkscreen on Paper

Size: 1090x1530mm

Print run 30~40 Ecah / Paper: Insuper Rough 157g/m2 / Ink: Visprox Process Colors (CM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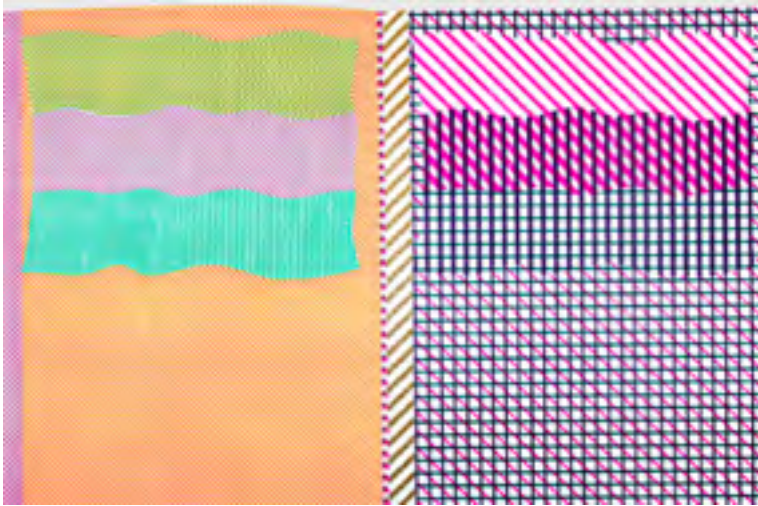


Cake

B1×6 2007

Offset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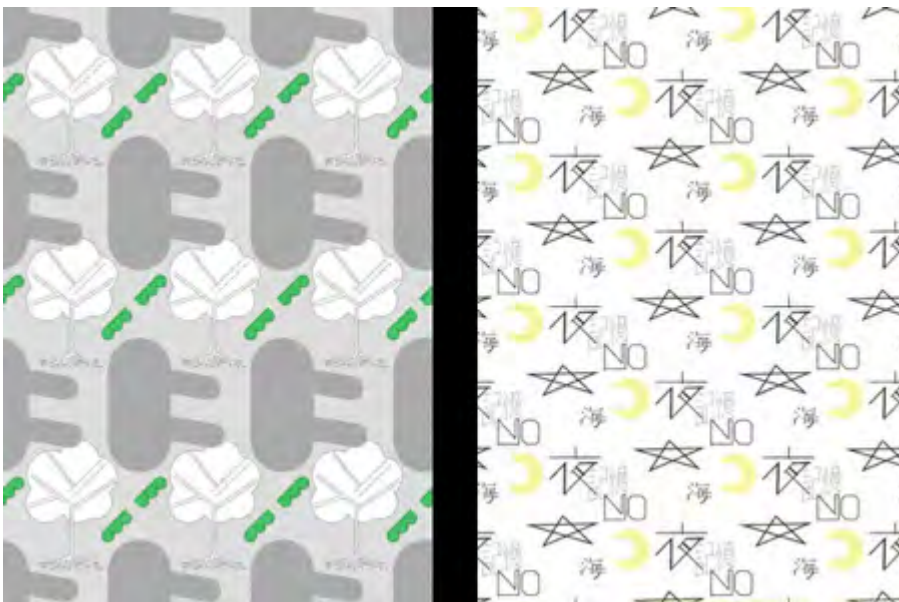
Flag  
B1×5 2007  
Offset on Paper



Hello Kitty  
B0×4 2004  
Inkjet on Paper(reprint)



Wall Paper (Ginza Graphic Gallery)  
B1×12 2010  
Offset on Paper



# 服部一成

## 작가소개

핫토리 카즈나리(b, 1964-)는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이다.

도쿄 예술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 1988년 졸업과 동시에 광고제작사(Advertising production company) '라이트 퍼블리시티(Light Publicity)' 입사 이후 2001년까지 13여년간 아트디렉터로 근무했다. 이후 Kazunari Hattori Design Office로 독립, 그만의 독특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KEWPIE의 지면광고(1999년 ADC상 수상)와 2002~2004년에 걸친 <流行通信 RyukoTsushin> 아트 디렉션 (제6회 카메쿠라 유사쿠상 수상)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시도들은 일본 그래픽디자인계에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물결을 주도했다.

## 주요 작업

잡지<真夜中(Mayonaka)> <流行通信 (RyukoTsushin)> <here and there> 아트 디렉션. <큐피 하프>, JR동일본 등 광고 디렉션.  
<미츠비시1호관미술관><히로사키벽돌창고미술관>등 로고 디자인, 심볼 마크, CI.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요코하마미술관, 도쿄도정원미술관 등 미술관 포스터, 정보 통지 디자인. <쁘띠 로얄 일불사전>등의 사전, 사진집, 화집, 문예서 북 디자인. 에르메스 이벤트 <petit h 오브제들>, <Hermès Bespoke Objects> 아트디렉션.

## 주요 전시회

<BETWEEN A AND B>(appel/2002). <제6회 카메쿠라 유사쿠상 수상 핫토리 카즈나리전>(크리에이션 갤러리G8/2004). 핫토리 카즈나리전<시각전달視覚伝達>(갤러리5610/2007). <나카조핫토리핫초메심중>(나카조 마사요시와의 공동 전시회, 크리에이션 갤러리G8/2009). <핫토리 카즈나리 이천십년십일월>(긴자 그래픽 갤러리/2010)

## 주요 수상경력

도쿄ADC상, 도쿄ADC상회원상, 제6회 카메쿠라 유사쿠상, 하라 히로무상, 도쿄TDC회원상, 도쿄TDC그랑프리, JAGDA상. Mainichi Design Award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http://www.altspaceloop.com)

## 언론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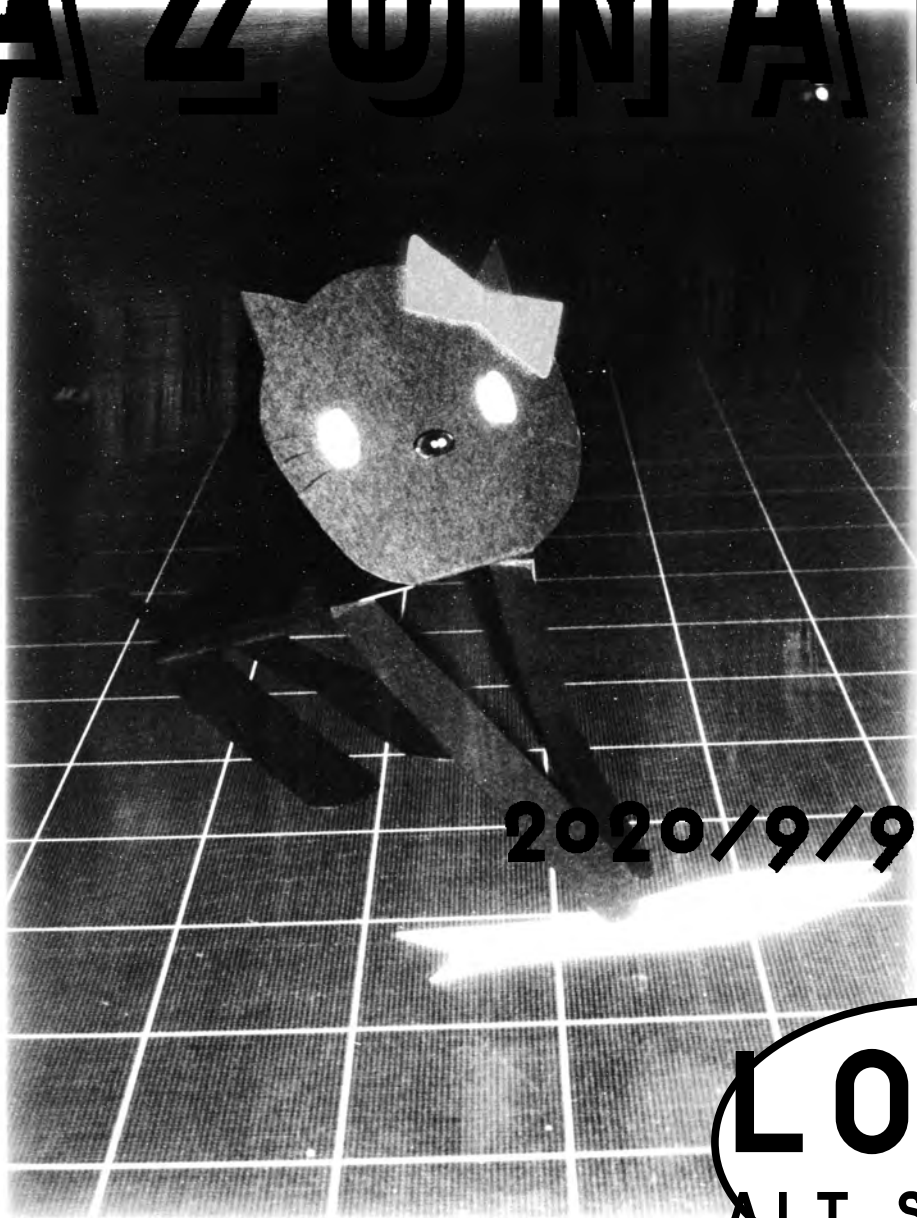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피지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mailto:gallery.loop.seoul@gmail.com)

# KAZUNARI



2020/9/9~27

LOOP  
ALT SPACE

# POSTERS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카즈나리 섯토리 포스터 2020/9/4-9/27 대안공간 루프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협력:그레이오발 후원: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